한돈산업 정책방향

수급을 중심으로



박 홍 식 과장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목차

1. 축산업에서 한돈산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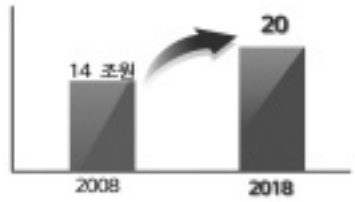
2. 한돈산업 정책방향

3. 제언

1. 축산업에서 한돈산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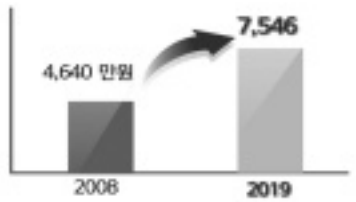
축산업의 양적 성장 : 국가 경제와 농업인 소득에 기여

축산업 생산액



- 축산업 생산액은 지난 10년간 46% 증가
  * (2008) 13.6조원 → (2018) 19.8
- 전체 농업 생산액은 17% 증가
  (축산업 제외 시 4%)
  * (2008) 42.8조원 → (2017) 50.1
- **돼지 7.1조원**, 한우 4.8, 닭 2.3, 우유 2.1, 오리 1.3, 계란 1.3

축산농가 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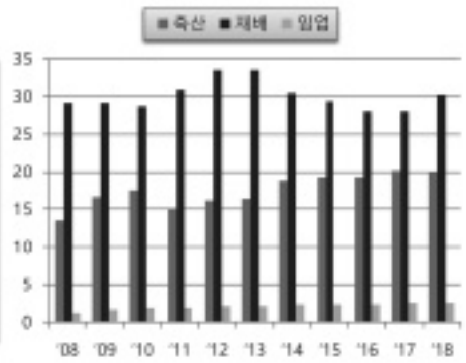


- 축산농가 소득은 지난 10년간 62.6% 증가
  * (2008) 4,640만원 → (2018) 7,824 → (2019) 7,546
- 전체 농가 소득은 34.9% 증가
  * (2008) 3,052만원 → (2018) 4,207 → (2019) 4,118
- 전체 농가 소득 대비 축산농가 소득도 31%포인트 증가
  * (2008) 152% → (2017) 183%

축산업 생산액 연도별 경향

(단위 : 조원)

구 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p
농업	축산	13.6	16.5	17.5	15.0	16.1	16.3	18.9	19.2	19.3	20.2	19.8
	재배	29.2	29.2	28.7	31.0	33.5	33.5	30.4	29.3	28.0	28.0	30.3
소 계(A)		42.8	45.6	46.2	46.1	49.6	49.8	49.2	48.5	47.3	48.2	50.1
임 업(B)		1.2	1.6	1.8	1.9	2.1	2.0	2.4	2.4	2.3	2.5	2.5
합계(A+B)		44.0	47.3	48	47.9	51.6	51.9	51.6	50.9	49.6	50.7	52.5



- 축산업 생산액은 **2011년 이후 계속 증가하다가 정체**
  * (2008) 13.6조원 → (2010) 17.5 → (2011) 15.0 → (2012) 16.1 → (2017) 20.2 → **(2018) 19.8**
- 재배업 생산액은 **2012년, 2013년 정점을 찍은 후 다소 감소하다가 2018년부터 상승세 전환**
  * (2008) 29.2조원 → (2012) 33.5 → (2013) 33.5 → (2014) 30.4 → (2017) 28.0 → **(2018) 30.3**

축산업의 양적 성장 : 국가 경제와 농업인 소득에 기여

농축산업 생산액 TOP 10 품목

(단위 : 조원)

순위	'08년		'09년		'10년		'12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품목	생산액	품목	생산액	품목	생산액	품목	생산액	품목	생산액	품목	생산액	품목	생산액	품목	생산액	품목	생산액
1	미곡	9.4	미곡	8.7	미곡	6.8	미곡	8.1	미곡	8.1	미곡	7.6	돼지	6.7	돼지	7.3	미곡	8.4
2	돼지	4.1	돼지	5.5	돼지	5.3	돼지	5.3	돼지	6.6	돼지	6.9	미곡	6.3	미곡	6.6	돼지	7.1
3	한우	3.3	한우	3.8	한우	4.6	한우	3.3	한우	4.0	한우	4.4	한우	4.8	한우	4.4	한우	4.8
4	우유	1.6	닭	2.0	닭	2.1	닭	2.1	우유	2.3	우유	2.2	우유	2.1	닭	2.4	닭	2.3
5	닭	1.4	우유	1.7	우유	1.7	우유	2.0	닭	2.0	닭	1.9	닭	1.9	우유	2.1	우유	2.1
6	계란	1.2	계란	1.4	계란	1.3	계란	1.4	계란	1.8	계란	1.8	계란	1.7	계란	2.1	오리	1.3
7	오리	1.2	오리	1.2	오리	1.3	건고추	1.5	딸기	1.3	사과	1.6	마늘	1.4	딸기	1.4	딸기	1.3
8	수박	0.9	건고추	1.0	딸기	1.1	오리	1.4	토마토	1.1	딸기	1.2	딸기	1.3	양파	1.1	계란	1.3
9	건고추	0.9	인삼	0.9	인삼	0.9	인삼	1.1	오리	1.1	수박	0.9	사과	1.2	마늘	1.1	고추	1.0
10	인삼	0.9	감귤	0.9	감귤	0.9	감귤	0.8	수박	1.0	토마토	0.9	오리	0.9	사과	1.1	마늘	1.0

생산액 품목별 비교에서도 축산 품목이 상위 10품목 중 매년 반수 이상 점유

축산농가의 전업화, 규모화 경향

(단위 : 천마리, 천호, 마리/호)

구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3
한육우	사육마릿수	2,922	2,950	3,059	2,918	2,759	2,676	2,717	3,020	3,113	3,237	**3,162**
	(한우)	(2,762)	(2,820)	(2,933)	(2,810)	(2,670)	(2,561)	(2,585)	(2,871)	(2,962)	(3,078)	**(3,006)**
	사육호수	172	163	147	130	104	94	90	99	97	94	**94**
	(한우)	(166)	(158)	(142)	(119)	(99)	(89)	(85)	(94)	(92)	(89)	**(89)**
	호당마릿수	17.0	18.1	20.8	23.5	26.6	28.4	30.2	30.6	32.1	34.4	**33.6**
	(한우)	(16.6)	(17.8)	(20.7)	(23.6)	(26.9)	(28.6)	(30.6)	(33.0)	(32.1)	(34.6)	**(33.7)**
젖소	사육마릿수	430	404	420	424	431	411	404	409	408	408	**409**
	사육호수	6.3	6.1	6.0	5.8	5.7	5.5	5.4	6.6	6.3	6.1	**6.2**
	호당마릿수	67.7	66.6	69.9	72.8	76	75	76	62	64	66	**66**
돼지	**사육마릿수**	**9,881**	**8,171**	**9,916**	**9,912**	**10,090**	**10,187**	**10,367**	**11,273**	**11,333**	**11,280**	**11,208**
	사육호수	**7.3**	**6.3**	**6.0**	**5.6**	**5.2**	**4.9**	**4.6**	**6.3**	**6.2**	**6.1**	**6.2**
	호당마릿수	**1,345**	**1,287**	**1,642**	**1,759**	**1,940**	**2,075**	**2,266**	**1,786**	**1,831**	**1,839**	**1,810**
닭	사육마릿수	149,200	149,511	146,836	151,337	156,410	164,131	170,147	170,551	172,993	172,920	**180,352**
	사육호수	3.6	3.4	3.1	3.1	3.0	3.0	3.0	3.0	2.8	2.8	**2.9**
	호당마릿수	41,444	43,935	46,703	49,024	52,329	54,637	56,848	57,444	61,193	62,112	**62,470**

식생활 변화에 따라 축산물(특히 육류) 소비량 증가

구분		'00	'05	'12	'13	'14	'15	'16	'17	'18	'19p
1인당 소비량	육류(kg)	32.0	32.1	40.5	42.7	45.1	**46.1**	49.5	49.1	53.9	**54.5**
	(쇠고기)	(8.5)	(6.7)	(9.7)	(10.3)	(10.8)	**(10.9)**	(11.6)	(11.3)	(12.7)	**(13.0)**
	(돼지고기)	**(16.5)**	**(17.8)**	**(19.2)**	**(20.9)**	**(21.5)**	**(22.5)**	**(24.1)**	**(24.5)**	**(27.0)**	**(26.8)**
	(닭고기)	(6.9)	(7.6)	(11.6)	(11.5)	(12.8)	**(13.4)**	(13.8)	(13.3)	(14.2)	**(14.8)**
	계란(Kg)	9.2	11.1	12.1	12.6	13.0	**13.4**	13.7	12.4	13.4	**14.1**
	(개)	(184)	(220)	(242)	(252)	(260)	**(268)**	(274)	(248)	(268)	**(282)**
	우유(kg)	59.6	62.9	67.2	71.3	72.4	**75.7**	76.4	79.5	80.1	**81.8**

2019년 1인당 육류 소비량은 54.5kg 으로 2015년 46.1kg 대비 18.2% 증가
(같은 기간 1인당 계란 소비량, 우유 소비량도 증가 추세)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은 2018년 27.0kg 이후 2019년 26.8kg 으로 소폭 하락

수입개방에 따른 자급률 감소

(단위 : %)

	'05	'10	'13	'14	'15	'16	'17	'18	'19
육류	**74.6**	71.5	72.9	70.0	67.1	68.0	**66.6**	63.7	**65.5**
(쇠고기)	48.1	43.2	50.1	48.1	46.0	38.9	41.0	36.2	36.5
(돼지고기)	**80.7**	**80.0**	**81.3**	**75.2**	**70.2**	**73.7**	**70.8**	**66.9**	**69.7**
(닭고기)	84.3	79.7	78.2	78.2	83.1	81.8	80.8	77.8	76.7
계란	99.3	99.6	99.6	99.6	99.7	99.7	97.3	99.4	99.4
우유	73.6	65.4	58.4	60.7	56.5	52.9	50.3	49.3	48.5

- **(육류자급률) 2005년 74.6% ➡ 2019년 65.5% (7.9%p 감소)**
- (돼지고기) 2005년 80.7% ➡ 2019년 69.7% (11.0%p 감소)
  - **2018년 66.9% 최저점 기록 이후 2019년 69.7%로 2.8%p 상승**
  - 배달음식, HMR등 시장으로 수입육 확대, 최근에는 구이용 시장까지도 확대(이베리코)

수입개방에 따른 자급률 감소

◆ 수입량(국가별)

* 냉장/냉동 수입비중(2019) : (냉장) 21천톤, (냉동) 400천톤

○ 미국산 목전지 등 수요 증가로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 증가 추세**

○ 2018~2019년 이베리코 열풍 등 스페인산 돼지고기 수입 증가

(단위 : 천톤, %)

국가	2016년	2017년	2018년(A)	2019년(B)	2020.5	증감률(B/A)
총 수입량	**318.5**	**369.2**	**463.5**	**421.3**	**147.8**	**△9.1**
미국	106.1(33.3)	135.0(36.6)	184.6(39.8)	173.8(41.2)	68.9(46.6)	△5.9
EU	166.6(52.3)	186.6(50.5)	219.4(47.2)	186.5(44.3)	55.0(37.2)	△15.0
독일	59.3(18.6)	80.2(21.7)	83.9(18.1)	78.0(18.5)	27.8(18.8)	△7.0
스페인	41.7(13.1)	35.1(9.5)	56.0(12.1)	56.7(13.5)	13.8(9.3)	1.3
네덜란드	14.4(4.5)	22.6(6.1)	24.7(5.3)	19.9(4.7)	5.4(3.6)	△19.5
오스트리아	13.4(4.2)	13.9(3.8)	14.0(3.0)	10.7(2.5)	3.3(2.2)	△23.7
덴마크	7.5(2.4)	8.9(2.4)	11.1(2.4)	8.0(1.9)	0.8(0.5)	△27.6
벨기에	10.7(3.4)	9.3(2.5)	10.0(2.2)	–	–	△100.0
프랑스	7.1(2.2)	7.4(2.0)	7.9(1.7)	5.3(1.3)	1.4(0.9)	△33.1
아일랜드	4.9(1.5)	2.4(0.7)	4.7(1.0)	3.6(0.9)	0.4(0.3)	△23.2
칠레	22.2(7.0)	21.8(5.9)	26.0(5.6)	24.9(5.9)	10.4(7.0)	△4.2
캐나다	13.1(4.1)	14.7(4.0)	22.5(4.9)	25.3(6.0)	10.4(7.0)	12.6
멕시코	9.9(3.1)	11.0(3.0)	10.9(2.4)	8.4(2.0)	1.5(1.0)	△22.9

◆ 2019~2020년 수입량 비교(국가별)

○ 2020.5월(1.1~5.31)까지 수입량은 147.8천톤으로 전년 212.4천톤 대비 30.4% 감소

○ 4월 중순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tyson food 등 주요 육류 가공장 작업 중단으로 인해 가동률이 크게 떨어졌으나, 최근에는 **약 80% 이상 수준으로 회복**

○ 국내 수입물량 감소는 공급 차질로 인한 영향보다는 **수입육 소비 감소**와 **재고 과잉**에 따른 수입업체의 수입 수요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

(단위 : 천톤, %)

국가	2019.5월	2020.5월	증감률(B/A)
총 수입량	212.4	147.8	-30.4%
미국	90.6	68.9	-24.0%
EU	94.0	55.0	-41.5%
독일	38.0	27.8	-26.8%
스페인	30.7	13.8	-55.0%
네덜란드	11.2	5.4	-51.8%
오스트리아	4.4	3.3	-55.0%
덴마크	5.0	0.8	-84.0%
벨기에	–	–	
프랑스	2.5	1.4	-44.0%
아일랜드	2.2	0.4	-81.8%
칠레	11.1	10.4	-6.3%
캐나다	10.4	10.4	0.0%
멕시코	3.5	1.5	-57.1%

축산 환경, 축산물 안전, 가축 질병 문제 부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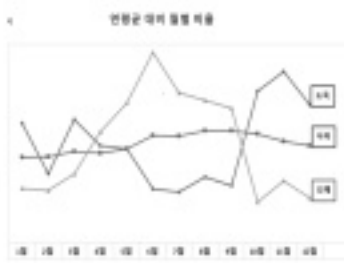
축산 악취 민원 증가

✓ 농장 슬러지, 덜 부숙된 액비가 주원인



계절별 불균형한 수급 상황

✓ 계절별 도축마릿수 편차로 인한 가격 및 수급 불균형 상황 반복



ASF 감염 야생멧돼지 지속 발견

✓ (야생멧돼지) 총 631건(6.3)
✓ (사육돼지) 14건(10.9 이후 미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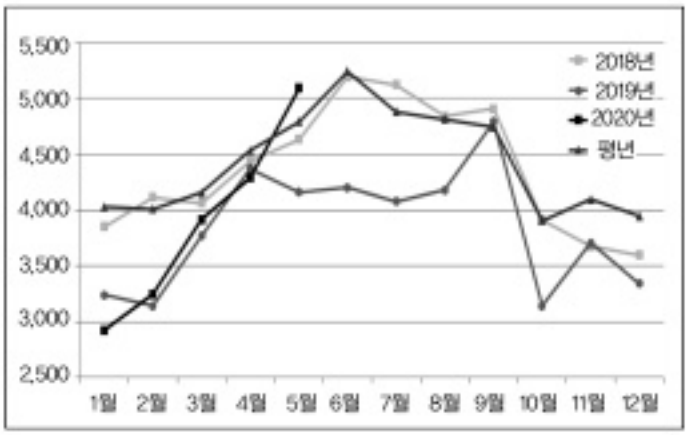


돼지고기 도매가격(단위 : 원/지육kg)

○ (공급) 전년 여름철(6~8월) 폭염에 따른 수태율 저하, 당해연도 고온 스트레스로 인한 식욕 저하에 따른 사료 섭취량 감소로 여름철 공급물량은 부족
– 다만, 가을철 증체가 원활해져 10~12월 공급물량은 대폭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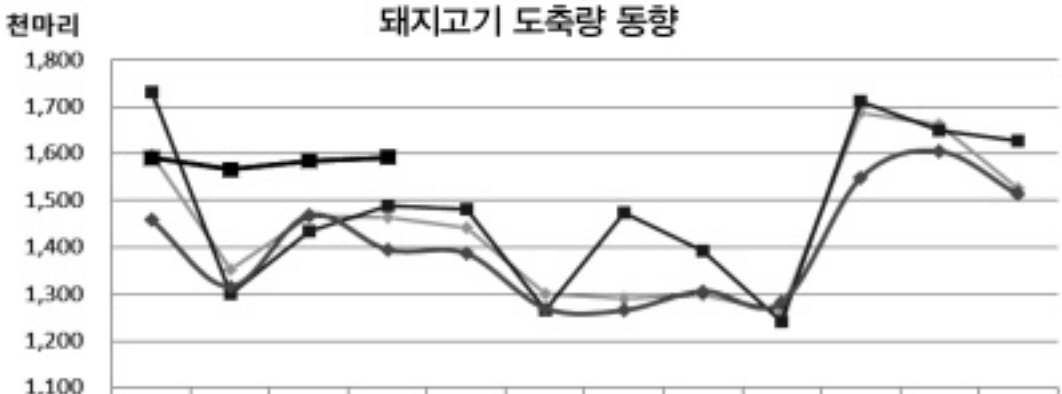
○ (수요) 1월 설날, 3월 개학, 4월 봄철 나들이, 5~6월 캠핑, 7~8월 휴가철, 11월 김장철 등 계절별 수요 존재

○ (수급 불균형) 공급물량이 가장 부족한 여름철 수요는 증가해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반면, 수요가 감소하는 추석 이후 10월, 돼지고기 소비가 줄어드는 겨울철에는 가격이 급격히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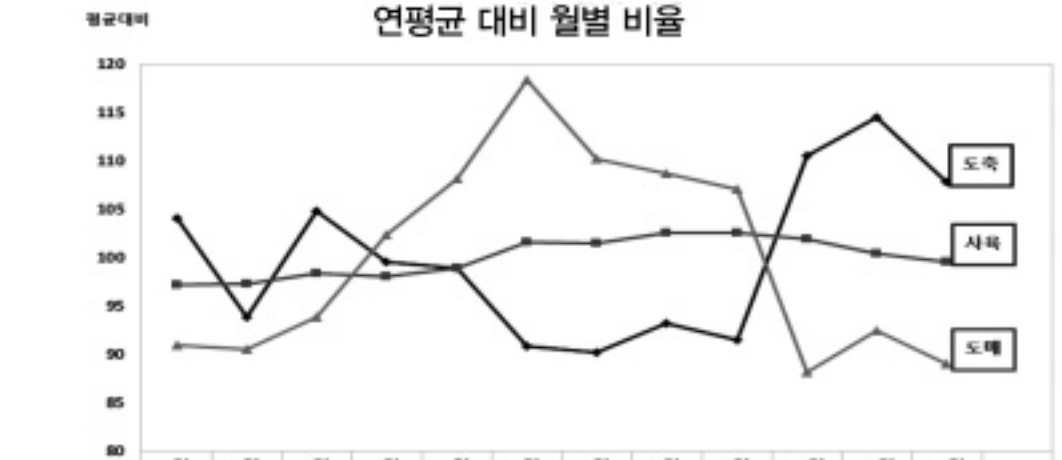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평년	4,030	4,009	4,157	4,531	4,789	5,243	4,881	4,814	4,743	3,903	4,097	3,945	4,429
2018년	3,853	4,114	4,063	4,439	4,635	5,192	5,120	4,838	4,909	3,911	3,675	3,597	4,296
2019년	3,241	3,143	3,768	4,370	4,159	4,200	4,076	4,179	4,791	3,143	3,705	3,341	3,779
2020년	2,923	3,248	3,915	4,286	5,115								

축산 환경, 축산물 안전, 가축 질병 문제 부각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8년	1,599	1,352	1,467	1,464	1,443	1,300	1,291	1,299	1,263	1,686	1,662	1,525
2019년	1,732	1,300	1,435	1,488	1,482	1,267	1,475	1,392	1,240	1,711	1,648	1,628
2020년	1,591	1,567	1,584	1,592								
평년	1,460	1,316	1,470	1,395	1,387	1,270	1,265	1,307	1,283	1,549	1,606	1,512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도축물량	104	94	105	100	99	91	90	93	91	110	115	108
사육마릿수	97	97	98	98	99	102	102	103	103	102	100	100
도매가격	91	91	94	102	108	118	110	109	107	88	93	89

축산 환경, 축산물 안전, 가축 질병 문제 부각

생산성 비교(2017) 출처 : 한돈팜스

- 우리나라 PSY : 20.9두, MSY : 17.5두(3.4두 차이)
- 덴마크 PSY : 33.29두, MSY : 31.26두(2.03두 차이)
- 네덜란드 PSY : 30.25두, MSY : 28.78두(1.47두 차이)

* PSY : Pig Sow per Year(어미돼지 1마리가 1년에 낳는 새끼돼지 수)
* MSY : Marketted-Pig Sow per Year(어미돼지 한 마리당 1년에 출하한 마릿수)

☞ 시사점 : 우리나라는 **1년에 340만두**(이유 후 폐사)의 돼지 손실 발생,
선진국과는 **약 150~200만두 차이**(원인 : 시설 노후화, 기온 편차, 기본적인 방역 미흡 등)

* 계산식 : 모돈 마릿수(102.6만마리, 2019년 평균) x (PSY-MSY)

연간 폐사 마릿수 및 폐사율(한돈팜스 성적을 바탕으로 계산) (단위 : 만마리)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폐사수	폐사율	폐사수	폐사율	폐사수	폐사율
분만 – 이유 구간	297.5	13.2%	266.8	11.8%	246.2	10.9%
자돈 – 비육 구간	318.1	14.1%	307.8	13.6%	338.6	15.0%
합계	**615.6**	**27.3%**	**574.6**	**25.4%**	**584.8**	**25.9%**

* 분만-이유구간 폐사 마릿수 : (산자수 – PSY) x 모돈수(102.6만마리)
* 자돈-비육구간 폐사 마릿수 : (PSY – MSY) x 모돈수(102.6만마리)
* 폐사율 : 폐사 마릿수 / 당해연도 사육 마릿수(2017: 1,127만, 2018: 1,133, 2019: 1,128) / 회전율(2)

2019년 9월 이후 폐사율 (단위 : 만마리)

구분	2019.9월	2019.10월	2019.11월	2019.12월	2020.1월	2020.2월
분만 – 이유 구간	12.3%	10.5%	9.6%	9.1%	13.2%	11.4%
자돈 – 비육 구간	16.8%	15.0%	10.0%	7.7%	12.3%	10.5%
합 계	29.1%	25.5%	19.6%	16.8%	25.5%	21.9%

축산 환경, 축산물 안전, 가축 질병 문제 부각

한돈팜스 사용 농가의 월별 생산성적

◆ 2020년 1월 PSY 21.5두, MSY는 18.80두이며, 2월 PSY 21.0두, MSY는 18.7두임

○ 2019.9월 이후 PSY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 11월을 제외하고 **생산성이 향상**(0.4 ~1.5두) 되었으나 MSY는 **차이가 없음**

– 평균 MSY는 차이가 없으나 2020.2월은 전년 동기 대비 1.4두 증가

○ 양돈농가의 최종 수익을 결정하는 지표인 **이유 후 육성률***도 ASF 발병 이전과 비교하여 뚜렷한 **차이는 없음**

* 이유 후 육성률(MSY/PSY x 100) : 당월 출하마릿수 / 당월 이유자돈수

– 다만 2019.9월 이후 꾸준히 상승, 2020.2월은 전년 대비 4.5%p 증가한 88.7% 기록

◆ **생산비 투입이 이루어진 개체**(자돈)의 **폐사가 줄었다는 의미** **(방역수준 향상, 지난겨울 따듯한 날씨 등)**

구분		평균	9월	10월	11월	12월	익년 1월	익년 2월
산자수	2017년	23.8	24.2	23.2	23.4	23.0	22.5	24.2
	2018년	23.5	23.4	22.8	24.2	22.1	23.5	23.2
	2019년	**23.7**	23.6	24.1	23.2	22.8	24.4	**23.5**
PSY	2017년	20.9	20.9	20.2	21.6	19.6	19.8	21.8
	2018년	20.9	20.8	20.3	21.9	19.7	21.1	20.6
	2019년	**21.3**	20.9	21.8	21.1	20.8	21.5	**21.0**
MSY	2017년	17.8	18.8	17.0	19.1	17.9	18.6	18.6
	2018년	17.9	17.0	18.9	19.4	18.0	18.9	17.3
	2019년	**18.0**	17.2	18.5	18.9	19.1	18.8	**18.7**
이유 후 육성률(%)	2017년	85.4	89.9	84.2	88.2	91.4	93.8	85.4
	2018년	85.4	81.4	92.8	88.3	91.4	89.8	84.2
	2019년	**84.8**	82.3	86.9	89.7	91.8	87.6	**88.7**
출하일령	2017년	202	198	207	195	202	197	196
	2018년	201	207	198	195	200	182	210
	2019년	**202**	214	196	192	189	192	**191**

2. 한돈산업 정책방향



수급 안정화

가. 관측개선

그간 단기 중심 관측(1개월) → 중장기 (12개월) 중심으로 개편(2020.2월)

관측기간	가축의 사육주기를 고려한 중기 관측으로 방향을 전환 생산자가 출하시점의 공급량을 인지하고, 합리적인 입식결정 및 자율 수급조절 유도
정확도	활용통계 대체(통계청 → 이력정보), 이력제 정보의 오류검증을 통해 공급 예측의 정확도 제고
정보제공	관측월보 발간 시점과 연계하여 수급조절협의회 정례화, 생산자단체(자조금) 자율적 관측정보 공유 및 활용방안 논의, 문자 및 SNS 전파로 관측정보 확산

축산 사육환경 개선

가. 사육기준 강화

질병·악취·안전 문제 사전 예방을 위한 사육기준 강화

기준	**가축사육업자에 대한 시설 관리기준 강화** (농장 시설구조 유형별 축산차량 통제요령 마련, 주요 방역수칙 등 가축사육업자가 준수해야할 관리기준 강화 등)
점검관리	**농가 방역 준수사항 구체화,** **관련법에 산재된 점검사항 통합 및 체계화** * (예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함 → 농장 출입문을 잠그고, 방문목적을 확인한 후 축사 경영에 관련 없는 방문인 경우 방역상 방문이 금지됨을 안내
전문관리	축사의 사양관리, 방역소독, 환경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가축 사육관리업(가칭)' 신설(2020년 연구용역)

나. 악취 및 분뇨관리

악취 실시간 측정장비 설치 확대 등 악취발생 상시 관리

○ **공동자원화시설, 축산악취관리지역** 중심으로 실시간 암모니아(악취물질) **측정 장비**를 설치하여 상시모니터링 체계 구축

- (1단계) 공동자원화시설(86개소), 축산악취관리지역(시범 13개소) →
- (2단계) 전국 축산악취관리지역(195개소)

○ 악취배출 허용기준(악취방지법 시행규칙)을 **축사환경에 맞게 개정**하여 악취측정 객관화하고 농가의 철저한 관리 유도(환경부 협조)

축산 사육환경 개선

분뇨 **위탁처리시설을 통한 자원화 확대, 퇴액비 수요량 고려 생산 감축 유도**

○ **(자원화) 위탁처리시설**을 활용한 **가축분뇨 처리 비중을 확대**

– (증개축) 공동자원화시설(86개소) 대상 증개축 수요조사, 시설진단 등을 실시하여 연내 시설 증개축 착수

– (신규) 사전 민원해소 확인, 인허가 완료 등 **즉시 착공 가능한 사업자** 중심으로 공동자원화시설 신규 확충(2020년 신규 9개소)

– (마을형 공동퇴비장) **소규모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를 수거하여 **공동으로 자원화**하는 마을형 공동퇴비장 신규 지원(2020년 12개소)

– (부숙도 관리) 퇴비전문유통조직 육성, 개별처리시설 지원, 부숙도 측정기 보급 등 농가의 부숙도 관리 지원

○ **(정화)** 개별농가 정화처리시설 지원 및 공공처리시설 확대(환경부 협조)

○ **(경축순환)** 공동자원화시설, 퇴액비 유통센터 등 다양한 조직체 유형별 **표준모델 개발**

+ (유형) 공동자원화시설, 액비유통조직, 퇴비유통센터, 공동퇴비장 등

다. 농가 지원 강화

지원 강화 **강화된 사육환경 개선 관련 준수에 필요한 농가 지원 강화**

- 방역, 분뇨 적정처리 등 축산시설환경 개선에 필요한 **자금 집중 지원**
- 환경 관련 컨설팅 · 점검을 위한 **축산환경관리원 인력 · 조직** 확대 추진
- **광역악취개선사업, ICT 악취 측정기** 보급 확대
- **스마트 축사** 보급,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축산업 경쟁력 제고

가. 스마트 축사 조성 확대

2022년까지 **스마트축사 5,750호**(전업농 23천호의 25% 수준)를 보급, **생산성 향상과 질병, 악취를 최소화**한 축산 구현

* 스마트 축사 보급(누적) : (2017) 8백호 → **(2018) 14(전업농 6%)** → (2022) 57.5

보급확대	축사 환경관리, 가축 건강관리, 농장 경영분석 등을 위한 **ICT장비 지원 지속 확대**(2019 : 800호 목표 → 2020 : 1,200)
컨설팅	기존 장비소개 중심의 컨설팅 사업을 장비 도입 이후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사후관리 컨설팅까지 확대**
장비활용	데이터 공유 · 활용 기반 마련을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2020.3월, 초기단계) * 스마트 축산 장비별로 송출되는 각각의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수집 · 가공하는 소프트웨어



축산업 경쟁력 제고

나. 빅데이터 플랫폼

ICT 장비기업(50개사, 점유율 98%)별로 다르게 생성되는
데이터를 빅데이터 플랫폼 연결에 필요한 양식으로 변환해 제공하도록 협의
(농정원-장비기업 MOU 체결, 2019.12)

* (기존) 환경정보, 급이량 등의 정보를 개별 소프트웨어로 확인
  → (개선) 플랫폼에 접속하여 통합된 화면으로 농장 관련 정보 및 분석 정보 확인

문제점

데이터 연계 농가 모집 및 농가의 **수동 데이터 입력 부담 완화**를 위한 데이터 활용 컨설팅을 추진 중이나 아직 미흡한 상황

* 자동수집 정보 : (환경) 온 · 습도, 암모니아 등, (급이) 사료 섭취량, (건강) 체온 등
** 수동입력 정보 : (경영) 자산, 생산성, 생산비 등, (생산) 질병이력, 등급판정정보 등

참여확대 방안

축종별로 **우수농가를 선정**해 집중 컨설팅 지원으로 경영성적을 제고하고, 빅데이터 활용 우수농가로 육성 및 홍보 강화(2021년~)

* ICT 장비 설치 후 컨설턴트 농장 방문,
  플랫폼에 데이터 연계 여부 확인 및 우수사례 홍보
** 우수농가 육성 목표(누적)
  : 축종별 5호/총 20호(2021년) → 축종별 10호/총 40호(2022년)

수동 데이터 적극 입력 농가에 대해 경영 컨설팅을 중점 지원해 농가의 **자발적 빅데이터 플랫폼** 참여 유도

인력육성

기존 컨설팅 인력(수의사, 사양관리사, 경영 컨설턴트 등)에
축산, ICT · 빅데이터 등 교육을 지원하여
스마트축산 컨설턴트* 육성(2022년까지 250명)

* 2020.5월 기준 컨설턴트 수 : 98명(수의41, 경영30, 사양25, 장비2)

다.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축사시설(악취·환경민원, 무허가 축사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스마트축산 ICT 단지'** 시범조성(2022년까지 : 8개소)

- **개소당 15ha 규모**(45천평)
- ①스마트 축사, ②악취관리 및 분뇨 자원화 시설, ③차단 방역시설, ④교육장 및 ICT 관제센터로 구성
-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자체에 **토목 · 도로 등 단지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분뇨 · 방역시설 등 정책자금을 패키지로 지원
- 축산단지 내에 관제센터를 설치해 축사 내 **ICT 장비를 원격 제어**, 발생하는 데이터는 **빅데이터 플랫폼과 연계해** 맞춤형 컨설팅 지원(2023년~)

3. 제언

- **연중 안정적 수급관리**를 위한 **사육기술 개발 및 보급**(사양, 사료, 환경관리)
  - 시설, 기자재 등 H/W 지원에 의존하기 보다는 **사양기술 수준 향상 등을 고민**해야할 시점
  - 가격 변동성을 낮춰야만 **외식 및 가공 업체 수요 확보 가능(수입육과 경쟁 가능)**
- 생산성 향상을 통해 **폐사율을 저감**할 수 있는 **사육기술 개발 및 보급, 농가의 세심한 관리**
  - 장기적으로 시설투자가 병행되어야겠으나, 기본적인 **방역 수칙 준수, 적정 환기 및 분뇨처리**, 구서 · 구충 등 **축사 내 · 외부 환경개선**(매주 수요일 환경개선의 날 운동 동참) **필요**
  - 번식성적(PSY)이 높은 것보**다 이유 후 폐사**(PSY-MSY)**를 줄이는 것이 중요**
- **국산 돼지고기 소비 감소**에 대한 **생산농가의 사전 대비** 필요
  - 재난지원금 특수수요 감소,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외식 감소 및 다중이용시설 휴장(캠핑장 등),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혼밥족 증가(간편식) 등 **돼지고기 소비 감소 요인 다(多)**
  - 사육 마릿수를 늘려 수입을 **올리는 전략**보다는 **사료효율 향상, 출하일령 단축, 고품질 돼지 출하, 철저한 방역관리**로 질병 저감, **적정 사육밀도 준수** 등 **비용을 줄이는 전략 필요**